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새해 첫 주인 오늘은 주현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온 세상 앞에 드러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임원 헌신에배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택함 받은 일꾼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집회 후에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시에 금년도 십일조 및 월정 헌금을 작성해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로 작성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다음 주일 오후 집회 후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경회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MYF는 9시 30분, 장년부는 1시부터입니다.

교회의 일년 살림 규모를 확정하는 구역회가 20일 오후 2시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구역회원들은 보고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친교실에 유기농산물, 친환경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가게가 생겼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음식물 찌꺼기 제로 운동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 장애인 차량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교회 마당에 세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새교우>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청과 신앙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환히 열린 미래를 내다봅니다. 시련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지켜주시고, 유혹 앞에 흔들릴 때는 우리의 든든한 성체가 되어주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내딛는 삶의 발걸음 하나 하나가 중심이신 주님을 향한 발돋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의 포도주 향아리가 비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향아리 삼아 새 물을 갈아 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은 변화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깨우쳐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해주십시오. 또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박옥식 박병규 장영숙 구명자 김정준 정옥영 김일량 이은욱 배근수
 김금순 박영희 장영순 구안중 김현재 정이광 김행선 이원희 윤민희 배수연
 임창선 조항순 오미래 권미숙 임고운 김재영 김관행 정영선 홍선희 최종원

월정헌금:

김성자 김인걸 문영혜 박어진 서정순 유증희 이재문 윤주원 최윤선
 왕수명 이경남 이동천 최철수 광권희 황원순 황자순 김남중 오복순
 권미정

감사헌금:

김용진 박효선 정경례 권미숙 유영남 손승우 문홍일 김정길 최숙화
 이현순 김성자 구성실 김혜인 여선교회 오래된 미래 있는듯없는듯

생일감사헌금: 서원금 김희우

캄보디아 우물헌금: 김철수 김희우 홍지희
100주년 기념헌금 : 구명자 김정길 최숙화 이광섭 김수연 이봉옥
 무명1 (100주년 헌금 누계: 141,550,000원)

	장혜숙 노순옥 임정자 문영혜 안정숙 박홍재 박효선 최숙화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백혜숙 송양진 이영란 박혜경	장혜숙 정경례 임정자 박경선 박애순 광권희 허정윤 권미정 김금순 권미숙 오현정 정옥영 유경순 박미영 최영혜	심	심
--	---	---	---	---

인간은 거룩하다

--김준태

새벽에 깨어나면 그대여
 한 그릇의 물일량도 옆지르지 말라
 물 속에는 사람의 하늘이 출렁이나니
 새벽에 깨어나면 그대여 그대여
 한 삽의 흙일량도 불구덩에 던지지 말라

오늘 우리는 달팽이라도 어루만지자
 오늘 우리는 풀잎이라도 가슴에 담고 설레이자
 풀여치, 지렁이, 장구벌레, 물새, 뚝복새, 물망울
 땅 위에 살아 있는 것들은 얼마나 거룩하나
 땅 위에 살아 있는 것들은 얼마나 거룩하나

오오, 새벽에 깨어나면 그대여
 우리 이제 흐르는 강물에 발을 적시며
 강 건너 마을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자
 우리 이제 땅 위의 칼들을 녹슬게 하고
 바람이 어찌하여 불어오는가를 귀 기울이자

오오, 새벽에 깨어나면 그대여
 우리 이제 물과 흙 속에 뼈를 세우고
 옛사람 잠든 산천에 찢레꽃이 피어나듯
 물거품 같은 빛깔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하듯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라는 사실을 끝끝내 노래하자.

담당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람들의 발 앞에 있는 걸림돌은 치워주고, 평화와 생명의 세상을 열기 위해 땀 흘리십시오.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증언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믿어주시고, 주님의 꿈에 동참시켜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경험의 가장 내밀한 핵심 속에 머물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상처 입은 이웃과 창조 세계를 살림의 손길로 어루만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임원 헌신 예배	말씀 : 김재흥 목사
말씀 : 김기석 목사	기도 : 박혜경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권미정 집사 한상익 장로	인도자 강순배 권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정길 고광송 강순배 최숙화 서정순
	헌금위원	김철수 강순배(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 그러나 끊임없이 위기에 빠지는 것은 다양성 자체이다. 이는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를 제공하고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진 토양과 날재료를 내주는 수많은 동식물에 우리의 존립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전의 어떤 세대보다 더욱 깊게 의식하고 있다. 이러한 동식물 역시 다른 생물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매우 중요한 항생제나 약제를 포함하는 동식물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모든 의약품의 40퍼센트가 본래 식물과 곰팡이, 동물, 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재료에 기대고 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생태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지, 하나의 생물종이나 서식지를 파괴하면 얼마나 예측불가능한 결과가 생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양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자연에 적용되는 것은 문화에도 적용된다. 나는 자유 시장이 차이 덕분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우리 각자가 공동선에 기여할 능력이 있고 서로의 고유한 재능과 특기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원리는 모든 거래에 들어맞는다. 그러므로 세계화로 인해 국제 무역이 증대한다는 사실이 상서로운 일이라고 믿을 이유는 충분하다. 문명이 시작한 이래 다른 어떤 경제 체제도 이보다 더 사람들의 고통과 빈곤, 무지, 질병 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세계화 반대론자들의 말은 옳다. 한 나라 내부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여전히 많은 집단이 혜택의 분배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은 한 세대 이전보다 열악한 처지에 내몰려 있다. 현대 시장의 불안스러운 영향과 지나치게 빠른 변화 속도는 우리 모두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고, 한때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의미와 지원망을 제공했던 사회 생태계의 침식도 우리의 불안한 처지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실질적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 모두가 복된 삶을 누리고 존엄함의 전제 조건에 다가설 수 있는 사

회를 건설하려는 인간의 오랜 기획의 중심에 자리한 문제이다.

나는 거친 파도로 일렁이는 바다에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줄 몇 가지 개념을 제안했다. **통제**는 경제나 정치 발전을 불가피한 과정으로 치부하지 않고 거부하고 스스로 책임을 떠맡는 태도를 뜻한다.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광고쟁이나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과 기아 임금에 눈을 감는 생산자는 자신의 시간과 축복을 남들과 공유하지 않는 체제의 수혜자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합법적인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용납하기 어려운 이들이다. **자선**은 선진국에게 세계의 가난한 자들의 독립성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빈곤에서 탈피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진지한 의무를 안고 있다는 뜻이다. **창조성**은 이러한 의무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교육 투자가 —유일하지는 않더라도—가장 좋은 방식임을 시사한다. **협동**은 시장이 오직 경쟁만을 토대로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여기에는 여러 덕목, 특히 내가 말한 언약의 관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소가 없다면 개인의 이익 추구는 공동선을 낳지 못한다고 죄수의 딜레마는 말해준다. **보존**은 우리에게 자연과 미래에 대한 의무를 깨우친다. 이러한 의무가 없다면 경제 성장의 속도는 다만 우리가 얼마나 빨리 나락으로 향해 가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일 뿐이다.

이러한 도덕적 틀을 제시하는 것은 수많은 정부와 기업과 개인이 내려야 할 결정들의 무시무시한 복잡성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그러나 복잡성은 때로 도덕적 차원을 방기하는 핑계가 되기도 한다. 그런 핑계를 댄다면 우리는 패배자나 다름없다. 자유는 곧 제약이다. 자유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거니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 시작하는 게 아니다. 자유 시장은 훌륭한 제도이지만, 시장이나 다른 가치중립적인 과정(예를 들어 국제정치에서의 힘의 균형이나 유전 연구의 발전)이 저절로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옛날 옛적의 단순한 세계에나 어울리는 순진한 생각일 뿐이다. 근본주의는 종교에서처럼 경제나 과학에서도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 이상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해야 할 도덕적 이상은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계급과 수입과 인종과 신앙의 경계를 넘어 서로 이야기하고 귀를 기울이는 과정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